

순창사랑상품권 한도 확대

임실군, 고향사랑기부 감사 이벤트

설명절 10만원 이상 기부 자동 응모, 20명 추첨, 당첨 시 임실치즈 제공

순창군, 할인율 지류 10%, 모바일 및 카드 15% 2월 한달동안 구매한도 1인당 100만원까지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군은 위촉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설 명절 대목 기간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

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신협은행·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은 순창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감사이벤트를 전개한다.

군은 고향을 사랑하고 기부에 동참하신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 기간 임실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이 중 20명을 추첨하여 3만원 상당의 임실치즈 및 유제품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향후 개별연락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N치즈 답례품은 기부자의 65%가 선택하고, 시중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 할인된 가격의 답례품 제공은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3만원 기부 포인트로 3만8,000원 상당으로 구성된 치즈와 소시지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다.

임실N치즈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 고향사랑기부 임실군 답례품에 등록된 임실치즈·요거트 답례품은 총 12가지로, 지난해 총판매액만 1억원에 달했다.

치즈 답례품은 구성품이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연 최고의 답례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과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 30% 상당의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https://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모든 농협은행 지점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에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뿌듯하고,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인증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려는 순창군 주택 소유자 및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일러 공급 대리점을 통해 신청 방법 또는 우편접수나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 온라인접수(www.ecog.or.kr)도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2024년 유기질 비료 3500 농가 공급 추진

3월까지 순차적 공급

순창군이 1만5,600톤의 유기질 비료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3,500여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1만5,600톤의 유기질 비료 공급 물량을 3월까지 3,500여 농가에 공급한다.

이번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는 총 5종으로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 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종류와 및 등급에 따라 포당(20kg 기준) 1,300원 ~ 1,6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이와 별도로 관내 퇴비 생산업체에서 비료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 등 군비 5억원 지원하여 농가 부담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

뇨를 지역 내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은 농업인들이 차질 없이 영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자체적으로 공급업체 품질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품질관리와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 군수는 "토양 환경에 부담을 주는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대상자 선정

남원시는 지난 31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선발했다.

심사는 지원을 신청한 총 32가정에 대해 기본조건에 대한 서류심사, 가정형편, 결혼기간, 고향나들이 선발 이력, 모국 방문횟수, 자녀수, 가족분양, 센터 이용횟수 등 7개의 항목별 심사로 총 20가정을 선정했다.

특히, 금년에는 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시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원=김기두 기자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대기질, 신청횟수 등에 따라 우대가점을 신설해 매년 신청해도 선정이 안되었던 가정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선정된 가정은 왕복 항공료와 여행차 보원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순택 심사위원장(부시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2월 1~12일 특별방범활동 추진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명절 치안 수요에 대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민생안정 확보로 시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연례미 시대를 맞아 증가한 외부 활동으로 코로나 발생 전보다 범죄가 급증하며,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으로 설 명절 증가할 수 있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일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주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기간 금융기관, 금방, 편의점 등 현금대액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FO)과 지역경찰관들이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 방법개선 유도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중요 범죄에 대비한 총력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설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 선물용 등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13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3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 4개소를 포함한 3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과 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와 완

제품의 보존·유통 기준 적절성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는 떡류, 한과류, 가공식품류 등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추진

남원시보건소는 12월까지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마을회관, 주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76개소, 1,668명을 검진하였으며, 유소견자에 대해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추후관리 등 결핵 전과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올해는 1월부터 대산면을 시작으로 30일에는 아영면 광명마을회관 등 5개소를, 2월 23일에는 금지면을 방문하여 결핵검진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흉부 X선 촬영 후 실시간 원격 판독이 이루어진다. 유소견자의 경우 추가로 가래검사를 시행해 결핵여부를 진단하게 되며, 검진비는 전액 무료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